

“감사위원 분리선임때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유, 설명필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정책토론회 대표소송, 경영권 위협으로 볼수없어 결의요건 완화시 지배주주의 주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 선임 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면 지배주주만의 주주총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주최했다.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관련)

| |
|---|
| 과제 1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제출 (정부, 2020.8) |
| ①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④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명확화 ⑤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등 |
| 과제 2 공정거래법(기업집단법제, 집행체계 등) 전부개정안 제출 (정부, 2020.8) |
| ①(신규) 지주회사의 지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②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③(신규) 지정기업집단 기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④ 사외이사 임명규제 대상 확대 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
| 과제 3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제출 (정부, 2020.8) |
| ① 대표회사 이사회의 책임 ②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③ 비금융 계열사와의 이해상충 관리 ④ 내부거래, 전이위험 및 집중위험 관리 등 |

자료/송민경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정비와 선임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사외이사 임명규제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송 연구위원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

해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도 공익소송으로서의 특성 탓에 대표소송 제기가 드물다”면서 “승소 시 이익이 더 적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남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모회사의 손실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경영권 위협으로 볼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보다 소규모이므로 적어도 1인 이상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

은 의결권 제한 범위에서 최대주주와 기타주주간 차이를 두는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다.

주총 결의요건 완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감사 결의요건 완화는 주주 참여가 적은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만의 주총이 될 수 있어 전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에서 결의요건을 조건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10대 건설사, 연내 7.6만가구 분양 붐물

일반분양 5만1582가구 분양 예정
지난해보다 물량 3.5배 이상 늘어

연말까지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2020년 시공능력평가 기준)가 전국 55곳에서 7만6000여가구를 쏟아낸다.

1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10월 12일 기준) 10~12월 대형 건설사가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단지는 7만6140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다. 이 가운데 5만1582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일반분양 물량은 3만2360가구(29곳 62.7%), 지방은 1만9222가구(26곳 37.3%)다.

수도별로는 경기지역 1만4584가구(16곳 28.3%)에 이어 인천 1만3154가구(7곳 25.5%), 서울 4622가구(6곳 9.0%), 부산 3882가구(5곳 7.5%), 대구 3130가구(6곳 6.1%), 경북 3031가구(3곳 5.9%), 대전 1900가구(2곳 3.7%)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형 건설사(2019년 시공능력평가 기준)가 공급한

일반분양 물량(전국 1만4731가구, 수도권 5229가구·지방 9502가구) 대비 3.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건설사별 분양예정 단지는 ▲포스코건설 1만1346가구(10곳) ▲GS건설 1만5500가구(9곳) ▲대림산업 9122가구(10곳) ▲HDC현대산업개발 4897가구(3곳) ▲삼성물산 3852가구(3곳) ▲롯데건설 3844가구(3곳) ▲현대건설 2721가구(4곳) ▲현대엔지니어링 2972가구(8곳) ▲대우건설 2488가구(4곳) ▲SK건설 335가구(1곳) 등이다.

매매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 단지 매매가가 높은 편이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사는 해외플랜트, 토목, 기반시설 등 다양한 건설 경험이 풍부해 노하우와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단지들로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1-12 일원에서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 59~84㎡, 834가구 중 254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과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2023년말 개통)와 서해선(대곡~소사)도 예정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1월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100-7 일원에서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 64·79㎡ 2205가구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45층 6개동의 주상복합단지과 5개 동 규모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이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은 오는 11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5050가구 중 37~84㎡ 2900여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 62~84㎡, 1004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남해 관당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영농형 태양광으로 ‘두 토끼’

농사·태양광 발전 병행
태양광 하부 음영 최소화

한화큐셀이 영농형 태양광 모듈을 제공하면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 병행에 앞장서고 나섰다.

한화큐셀은 지난 12일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경남 남해 관당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에서 벼 추수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수식에는 영농형 태양광 모듈을 제공한 한화큐셀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한 한국남동발전, 농지를 제공한 관당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시공협력체인 클래스(KLES)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설치된 100kW 규모로 남동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어진 6곳의 시범단지 중 하나이며, 발전소 수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 용도로만 쓰이는 기존 육상 태양광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상부에서 진행하고 농지 하부에서 작물재배를 병행한다.

즉, 농지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할 수 있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등 영농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

수익과 함께 부가적으로 전력 판매수익도 얻을 수 있어 각광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이 병행 가능한 이유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량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대 광합성량의 임계치인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빛은 작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를 태양광 발전에 이용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은 태양광 모듈의 크기와 배치를 조절해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다.

한화큐셀은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하도록 기존 육상 태양광 모듈 크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형 모듈을 제작했다.

이 모듈은 태양광 하부의 음영을 최소화해 농작물이 필요한 광합성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에서는 이앙기, 콤바인 등의 경작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보통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에서 3.5m 위에 설치된다.

이는 농사에 필요한 기계가 태양광 하부를 자유로이 지나다닐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육상 태양광보다 모듈이 높게 설치되기 때문에 작은 모듈을 사용해 구조물의 하중을 줄여 안전성을 높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현대모비스,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구축

SW활용 역량 강화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시대를 이끌 수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SW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새로 구축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직원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SW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의 SW역량 강화를 위해 시간과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신규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SW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은 일반 직원을 위해 주로 프로그래밍 기초,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입문 단계의 45개 강좌로 구성했다.

또 강의를 들으며 온라인으로 코딩을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온라인 강의는 최대 1000명의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직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가능 인원과 교육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2018년부터 미래자동차 분야 SW역량 강화를 위해 ‘SW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SW교육은 자율주행 센서와 커넥티비티, 인포테인먼트 등 심화·전문 단계 중심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자기주도적 SW개발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SW 알고리즘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SW 알고리즘 경진대회’에는 연구원들과 일



‘SW 알고리즘 경진대회’

반 사무직 등 총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모비스는 SW역량 개발 교육뿐 아니라 SW전문가가 되기 위한 평가와 자격인증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운영 중인 ‘SW 자격인증시험’이 있다. 이 자격인증시험을 통과한 직원들은 독자적인 SW 문제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단독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SW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